

교육공무직 노조 총파업 대응 총력

전북교육청, 파업 대응 방안 안내·대응본부 운영... 학생·학부모 불편 최소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1일 예고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에 따른 학생, 학부모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1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일, 21일과, 12월 4일과 5일 등 총 4회에 걸쳐 권역별로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북 등 호남권 총파업은 21일로 예정되면서 급식·돌봄·특수교육, 유아

교육 등 학교 현장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이는 파업 예고 및 작종별 현장 상황을 고려한 대응 방안을 담아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다. 19일에는 본청 각 부서와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회의를 통해 급식 등 학교 취아 부문에 대한 점검 및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

다. 특히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파업에 참여하는 종사자 규모를 고려한 식단 조정 △빵·우유 등 대체 급식 제공 △도시락 지참 △교육과정 조정 등 학교별 여건에 맞게 운영하도록 안내했다. 이와 함께 △통합 돌봄 운영 △정규 교육과정 종료 후 학교 시까지 교실 개방 등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파업 전일과 당일에는 본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에 상황실을 운영해 신속한 보고 체계를 갖추고, 학교급식 실시 여부와 돌봄 학교 운영 여부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총파업에 따른 급식 및 돌봄 공백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교직원이 협력해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전세 통학버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9일 창조나래 2층 회의실에서 전세 통학버스 입차계약 관련 이해관계자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 및 전세버스 운영 학교장,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세 통학버스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차량 완화 △운전자 연령 기준 △차량의 구조변경에 따른 인승 인정범위 확대 △지역 내 소규모업체 상생 방안 등 향후 계약 추진 시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에 제안된 현장 의견을 검토해 '2026년 전세통학버스 입차 계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RISE 사업단

예비창업자 양성 프로그램 전개

전주비전대학교 RISE사업단(단장 이근상)은 학생들의 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천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RISE사업단은 지난 5일과 12일 창업 전문가를 초청해 기초 전략과 창업 마인드를 다지는 특강을 진행한 데 이어, 17일에는 두 전문가와 직접 소통하는 창업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는 예비창업자로 성장할 학생들에게 창업 아이디어 발굴, 실패 경험 관리, 정부지원 활용 등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강연자들은 ‘작은 아이디어도 실행해보는 도전 정신’과 ‘실패를 성장의 자산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실제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마음가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우리학교 새학교명 공모'

남원용성고, 20~27일 추진

남원용성고등학교(교장 송한득)는 20~27일 '우리학교 새학교명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학교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학생·학부모·동문회·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남원용성고에 따르면 1936년 남원농업전수학교로 개교해 1944년 남원공립농업학교, 1990년 남원농공고등학교, 2003년 남원용성고등학교 등 3회에 걸쳐 학교명을 변경했으며, 22년 만에 다시 한번 교명 변경을 추진한다. 이번 교명 변경은 △산업의 변화와 삶의 방식 전환에 따른 시대적 요구 반영 △신기술·신산업 및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실무능력 중심의 인력 양성체계 구축 △스마트 농생명 산업 분야의 전체 학과 개편에 따른 학교명 특성과 전략 수립 △전통적 직업교육 인식 개선 등 시대적 변화와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남원용성고는 2025년 교육부 직업계고 재구조화(전북글로벌특성화고 신규지정 포함) 사업에 선정, 2027년부터 스마트팜과 드론팜테크과·카페플라워과로 3개 학과로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는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18~19일 1박 2일 일정으로 전주시 라한호텔에서 '2025년 W-J 졸업&쉽 없는 취업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지역 청년, 실전 취업준비로 자신감 'UP'

우석대-전주대, '2025년 W-J 졸업&쉽 없는 취업캠프' 공동진행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대학일자리본부는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18~19일 1박 2일 일정으로 전주시 라한호텔에서 '2025년 W-J 졸업&쉽 없는 취업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지역 대학 졸업예정자와 청년들이 취업 과정에서 겪는 불안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취업 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프에는 졸업예정자와 미취업 졸업

생, 34세 이하 지역 청년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1박 2일 동안 변화하는 채용 트렌드와 취업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개인별 취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체계적인 구직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한 자기 이해와 강점 탐색 활동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도 모색했다. /장은성 기자

새참교육 “공동 학위제 추진으로 대학 서열화 막자”

'서울대 10개 만들기 전망·과제' 주제 제2차 포럼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대표 노병섭, 이하 새참교육)은 지난 18일 전주 중부비전센터 5층 비전홀에서 도내 교육계 인사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 교육 대전환의 시작-서울대 10개 만들기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전북 교육감 출마 예정자 노병섭 대표와 경기 교육감 출마 예정자 안민석 전 국회의원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노병섭 대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5년간 여좌조를 지원한다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가 GDP



대비 약 07%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편”이라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교육 정책은 유초중고 체제 개편이 수반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면서, 공동 학위제까지 확대해야 대학 서열화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전 의원은 미국 유학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UC 10개 대학이 서

울대 10개 만들기'에 주는 교훈'을 주제로 교육 정책을 제시하며, 이후에 법 제정, 예산 수반 등 이번 포럼을 넘어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지방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지방 사립대를 벨트화해서 규모의 대학으로 확도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교육계 인사들은 유초중고 교육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 교육청으로 권한을 넘겨주는 '교육 자치' 시대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번 포럼은 교육 대전환이 왜 필요한지, 어떤 철학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하는지, 한국 교육의 미래 경쟁력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장은성 기자

청소년 흡연예방 위한 지역 협력 거버넌스 강화

교육청·도청·보건소·학생금연지원센터, 협의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9일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및 흡연을 감소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청소년 흡연 문제를 학교만의 과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공동책임으로 보고, 유관기관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하는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기획됐다. 협의회에는 본청을 비롯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청, 시·군 보건소, 학생금연지원센터 관계자 등 총 38명이 참석했다. 특히 청소년의 금연 실천을 위해 학교 교육, 상담 지원, 금연 환경 조성



참가자들은 △2025년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추진 현황 공유 △전북학생금연지원센터 운영 사례 발표 △지역과 보건소 간 협조 방안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학생 흡연을 감소 방안 등을 모색했다. 특히 청소년의 금연 실천을 위해 학교 교육, 상담 지원, 금연 환경 조성

등 각 기관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협력 체계 마련에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정보 공유 정례화, 시·군 단위 협력체 활성화, 기관 간 역할 분담 체계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강양원 문예재단강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는 청소년 흡연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대며 ‘기관 간 긴밀한 연대를 바탕으로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고,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가 17~21일 5일간 '2025학년도 제1회 학생성공주간(JJ Student Success Week)'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나의 성공, 대학·지역의 성공으로’

전주대, 제1회 '학생성공주간' 성료

성공사례 발표·토크콘서트 등 구성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는 17~21일 5일간 '2025학년도 제1회 학생성공주간(JJ Student Success Week)'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나의 성공이 대학의 성공, 그리고 지역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라는 주제로 재학생들이 학업과 진로, 비교과 활동 등을 통해 이뤄낸 성장과 성취의 사례를 공유하고, 서로의 성공을 응원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학생성공주간은 △학생성공사례 공모전 △성공스토리 전시회 △성공 토크콘서트 △학생성공사례 발표회 △성공지원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학생성공 사례 발표회'에서는 재학생들이 자신의 도전과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나누며, 또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했다. '성공 토크콘서트'에서는 동문과 선배들이 진로 멘토로서 조언과 현직 전문가로서의 생생한 경험담이 이어져 호응을 얻었다. 성공사례 발표회에 참여한 김가

람(회계세무학과 3년) 학생은 “이번 행사를 통해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스스로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른 학과 학생들의 도전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자극을 받았다”며 “이를 통해 나의 성공 목표를 매일 나아지고, 끊임없이 나아가며, 진정한 나다움을 찾아가는 것으로 정했다(나아짐, 나아감, 나다움)”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행사를 총괄한 학생성공센터 이석한 센터장(정보통신공학과 교수)은 “전주대학교에서 처음 열리는 제1회 학생성공주간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학생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과 도전을 되돌아보며 자신만의 성공(성장)을 설계하고 점검하며, 이를 타인과 서로 나누는 '성공 문화 확산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학업, 진로, 비교과, 대학 생활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강화해 학생 개개인이 자기 주도적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픽시자전거 이용 위험성 알린다

전북교육청, 안전교육 영상 제작·배포... 즉시 활용 가능

경찰청과도 공유... 학생·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교육 확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픽시자전거 및 브레이크 제거 자전거 이용 위험성을 주제로 안전교육 영상을 제작, 도내 모든 학교에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브레이크 제거형 픽시자전거를 '패션, 개성, 멋내기' 자전거 문화의 확장 형태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대형 사고 위험이 제기됐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증형 영상 자료를 개발했다. 이번에 제작된 영상은 △학생안전교육용 메인영상(4분) △SNS 홍보용 숏폼 영상(1분) △전광판 안내 영상(30초) △교동안전 홍보 영상(20초, 30초) 등 총 5종이다. 영상에는 픽시자전거 구조, 브레이크



미설치 위험성, 실제 위험 시뮬레이션, 안전 수칙, 보호 장비 착용 안내 등이 담겼다. 특히 학생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전달을 위해 다양한 예시와 경찰 인터뷰 및 비교 시연 형식을 적용했다. 더불어, 전북경찰청과도 공유해 향후 학부모와 도민 대상 교통안전 홍보 및 예방 교육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 늘봄·방과후학교 학교장 이해도 높인다

전북교육청, 초·중등 학교장 대상 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19일 이틀간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초·중·고 학교장 750여 명을 대상으로 '늘봄·방과후학교·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설명회는 2026학년도 초등 늘봄학교, 중등 방과후학교의 주요 내용과 정책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초등 3학년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으로 늘봄학교 지원 확대 △늘봄·방과후학교의 법제화를 통한 감사 검증·관리 강화로 교육의 중립성 준수 명확화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안내 등이다. /장은성 기자

더불어 2026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교가 갖춰야 할 준비 사항과 향후 운영 방향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어 학생맞춤통합지원원은 심리·정서, 경제적 문제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습지원, 심리·정서 지원, 교육복지 등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는 학생의 복합적인 문제를 단일 사업이나 부서가 아닌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협력해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3월 1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된다. /장은성 기자